

“재능있는 광주 발레 꿈나무들 키우고 싶어요”

“무대에 서는 시간은 온전히 내 몸에 집중하는 순간입니다. 안무를 할 때는 타인의 몸을, 교육을 할 때는 학생의 앞날을 바라보게 되죠.”

수많은 국제 발레 콩쿠르를 거쳐 국립발레단과 루마니아 국립 오페라 발레단 무대에 섰던 윤전일(39)은 한국을 대표하는 남성 솔리스트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달 부산콘서트홀 개관 기념 발레 갈라 ‘발레의 초대’ 무대에 올랐고, ‘윤전일 Dance Emotion’을 이끌며 발레·현대무용·한국무용을 엮어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내년 2월에는 광주에서 창작 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공연을 맞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됐으며,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애국훈을 발레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공연 준비와 신작 안무 작업으로 분주한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춤에 대한 애정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한다”고 말했다.

그의 출발점은 광주였다. 광주에서 태어나 발레를 배우고, 서울과 해외 무대로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무대에서는 플레이어로, 작업실에서는 안무가로, 교실에서는 교육자로 활동하며 발레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윤전일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발레를 시작했다. 또래 대부분이 어린 시절부터 발레를 배운 것과 비교하면 늦은 출발이었다. 춤을 추고 무대에 올라 관객 환호를 받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한때 아이들 연습생을 꿈꾸기도 했다. H.O.T.와 잭스키스를 보며 가수를 꿈꿨고, 중학교 시절에는 서울을 오가며 데뷔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 “아이들을 준비하면서도 막연함이 커어요.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신이 없었죠. 보다 체계적으로 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광주 무용의 대모’ 고(故) 엄영자 선생님

광주 출신 발레리노 윤전일, 안무가·교육자로 다양한 활동

한예종 졸업 이후 루마니아 국립 오페라 발레단 무대

내년 2월 광주서 창작 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공연

을 만나 발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발레를 만난 뒤 그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윤전일은 이를 “드디어 딱 맞는 옷을 입은 느낌”으로 기억한다. 초등학생들과 함께 기본 동작부터 다시 익히고, 잘하는 친구들의 움직임을 따라 하며 몸의 언어를 새로 배웠다.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습실에서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선배로 선생님이었어요.”

발레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한 그는 광주 출신 김선희 전 교수에게 사사했다. 이후 국립발레단에 입단해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루마니아 국립 오페라 발레단으로 이적해 주역 무용수로 무대를 넓혔다. 언어와 환경이 낯선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몸뿐이었다. 윤전일은 “그 시기에는 매일 춤만 쳤다”고 회상했다. 이 경험은 무대에서의 태도뿐 아니라 이후 안무와 교육을 대하는 기준이 됐다.

경력과 노하우가 쌓이자 그는 ‘윤전일 Dance Emotion’을 창작하고 안무가로서의 작업을 시작했다. 관객이 비교적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감성 발레 ‘사랑에 미치다’, 남성 무용수들만으로 구성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든 ‘첫 번째 게임’ 등이 대표작이다. 최근에는 고전 발레 ‘자煞’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윤전일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영역은 교육이다. 그는 2016년부터 9년여간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발레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지도해왔다.

다. 제자들은 예술중·고 진학과 국내외 콩쿠르 입상으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윤전일은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을 지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전일이 말하는 발레 교육의 핵심은 기술보다 태도다. 나이와 단계에 맞는 반복 훈련과 시간을 견디는 과정이 발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발레는 개인 예술처럼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협업해 완성하는 예술”이라며 “몸의 재능은 잠시 앞설 수 있어도 인성과 노력은 끝까지 남는다”고 말했다.

윤전일은 내년이면 마흔을 맞는다. 그는 무대 위 플레이어로서의 시간을 차분히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예술의 도시” 광주에는 재능 있는 학생들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분야처럼 결국엔 꿈나무들이 수도권으로 떠날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쉽습니다. 광주에서 나고 자라 발레를 배운 선배로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할 생각입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발레리노
윤전일



광주 출신 발레리노 윤전일은 무용수이자 안무가, 교육자로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레를 하는 윤전일의 모습. (윤전일 제공)

‘2025 광주문화예술상’ 문학 수상자 선정

박용철문학상 손동연 작가



김현승문학상 김영철 작가

정소파문학상 김강호 시인

‘2025 광주문화예술상’ 문학 부문 수상자가 결정됐다.

광주시는 최근 박용철문학상에 손동연 작가, 김현승문학상에 김영철 작가, 정소파문학상에 김강호 시조시인을 각각 선정했다.

광주문화예술상 문학 부문은 광주 출신 박용철 시인, 김현승 시인, 정소파 시조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지역 문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3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손동연 작가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등회로 등단해 시·시조·동시 등 다양한 청작활동을 펼쳤다. 초중등 국어 교과서에 10편의 시가 수록되는 등 청작 역량을 인정받았다.

김현승문학상을 받는 김영철 작가는 계간 ‘아시아서석문학’과 시조 전문지 ‘시



맥’ 발간 등 지역 문학, 출판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소파문학상의 주인공 김강호 시조시인은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로 등단해 활발한 작업과 이율리 다수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11일 ACC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수상자들에게는 장작활동 지원금 각 1000만 원이 제공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거짓말이 불러온 대소동

연극 ‘라이어 1탄’ 16~25일 광주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매리와 바바라, 사랑하는 두 부인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하는 택시운전사 존 스미스. 치밀하게 짜놓은 일정표대로 굴려가던 그의 하루는 우연한 강도 사건에 휘말리며 어긋나기 시작한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뱉은 작은 거짓말은 꼬리를 물고 불어나고, 상황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힘쓰는 코미디 연극 ‘라이어’ 시리즈가 올겨울에도 광주 관객들을 만난다.

‘라이어 1탄’이 16일부터 25일까지 광주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평일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2시·6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2시에 진행. 파파프로덕션 제작, 극단 코스모스 주최·주관.

‘라이어’는 영국극작가 레이 쿠니의 ‘Run for Your Wife’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현재까지도 60여 개국에서 공연되는 대표적 코미디로, 한국에서는 20년 넘게 사랑받으며 3만5000회 이상 공연, 누적 500만 관객

을 기록한 ‘국민 연극’으로 자리 잡았다.

극은 두 여인 사이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존 스미스, 그의 절친 스탠리 가드너, 대정하지만 무서운 여인 메리 스미스,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바라 스미스 등 개성 강한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상황극으로 전개된다.

빠른 호흡의 전개와 재치 있는 대사, 배우들의 과감한 코미디 연기는 관객의 웃음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특히 인물들이 거짓말을 수습하기 위해 내놓는 기상천외한 변명들이 이어질수록 코미디는 더욱 정교해지고 관객은 뜻밖의 반전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박석언 극단 코스모스 대표는 “라이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난처함을 과장된 코미디로 풀어낸 작품”이라며 “연말에 가족·친구와 함께 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4만9000원, NOL티켓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연극 ‘라이어’의 한 장면. (극단 코스모스 제공)

올해 신간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AI’

교보문고, 224종 도서 등장

올해 국내에서 출간된 책들의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AI’(인공지능)였다.

14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출간된 도서 가운데 총 224종의 도서 제목에 AI가 포함됐다. 출간 도서들의 제목에서 단어를 추출한 후 ‘하드 커버’, ‘2025’, ‘시리즈’, ‘위한’ 등 의미가 크지 않은 단어들을 제외하고 뽑은 순위다.

AI 외엔 ‘수업’(190회), ‘과학’(176회), ‘수학’(174회), ‘길’(158회), ‘마음’(155회) 등의 단어도 제목에 많이 들어갔다.

실제로 올해 AI 활용법을 안내하는 실용 서적부터 각 분야 AI 트렌드를 전망한 서적, AI의 이면을 다룬 인문서 등 여러

신간이 AI를 제목에 달고 출간됐다. 제목에 AI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AI를 다룬 책들은 눈에 띠게 늘었다.

앞서 교보문고가 이달 초 발표한 도서 판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간된 AI 서적은 2천40종으로, 지난해 1천57종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판매량도 작년 대비 68.5% 증가했다.

AI 전문가 이선 몰릭이 쓴 ‘듀얼 브레인’이 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등 AI 책 인기를 주도했다. AI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AI 책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6’을 비롯해 내년 트렌드를 예측한 책들 대부분이 ‘AI’를 내년 트렌드의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틀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마로45(신안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